

33 朝鮮治水治山史考  
(조선 치수 치산사고)

이 책도 1935년 10월에 조선총독부 임업  
시업장이 발행한 100쪽 짜리 인데 북사본  
이런 당시 임업시업장 축적으로 있던  
돈꾸미쓰(德光宣文)가 우리나라의 고대  
에의 근세에 이르기 까지 치산치수(治山治  
水)에 관한 사료(史料)를 조선왕조실록을

비슷한 수십개의 고전(古典)이 서술되어  
 하여 편찬한 것인데 이것을 당시의  
 <임업시행장특보>로 공표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 인동고전을 보면 삼국사  
 기(50권) 고려사(139권) 조선왕조실록(1768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250권) 반계  
 수록(石菴叢錄)(26권) 경세유표(經世遺表)  
 (32권) 목민심서(牧民心書)(48권) 경국대  
 전(經國대전)(6권) 경상도읍지(71권) 지봉유세  
 (芝峯類說)(20권) 이계집(耳溪集)(50권) 등

石溪

18개의 고전과 대전속록(大典續錄)(6권)  
 대전회통(大典會通)(6권) 및 신증동국여지  
 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55권)에서 추려  
 내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sup>삼국</sup>삼국 및 <sup>신라</sup>신라시대(서기  
 통일신라시대) BC 75 ~ 935 와 <sup>고려</sup>고려시대(고려  
 시대) 918 ~ 1392 . <sup>조선</sup>조선시대(조선시대) 1392  
 ~ 1469 까지의 77년간과 1470 ~ 1744 년 까지의  
 274년간과 <sup>1945</sup>1745 ~ 1863년 까지의 118년간  
 이 3기에 있었던 홍수, 산불, 화전 등 산악

20x10

제 해에 대한 기록은 전부 반취하고 있다  
 내용이 한문(漢文)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반해 하는 곳이 많으나 그런 데로 신조들은  
 당시의 안목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건 사실 등을 기록하고 있다  
 우선 삼국 및 통일 신라 시대에는 저수지  
 라 보(洑) 등을 추조 하<sup>는</sup> 등 수리(水利) 등  
 권장 하고 제해(堤堰) 등 예방하는 일기 등  
 많은 신 경 등 실행 하였으며 수원(水源)  
 함양 이<sup>는</sup> 동수해 등에 관<sup>한</sup>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고려시대 (918-1392)는 개간정책에  
대응 지방관용 포상도 하고 견책도 하였  
을뿐 아니라 조세 증대를 위해 개간을 장려  
하기도 했고 지수리의 민수취의 노력  
하기도 했다. 일변은 임야는 벌채를 제한  
했고 특히 도성 (南京) 일대 산림의 민호간  
힘썼다

이조시대 (李朝時紀)는 1기는 개국 초부터  
전제개혁 (田制改革)과 새로운 정돈 (定都)

로 인해 한양 주위에 四山(사산)을 정해  
 서목과 함께 이체(이체)의 벌목령 금지했다  
 특히 제주도와 두만강 주변에 방수림을 조  
 성하기도 했다

조선조 2기는 산요(山腰) 벌목 금지(山腰伐木禁止)  
 조치 등이 과목(果木) 축만하는 제도 개선이 있다  
 조선조 3기는 이른바 <제언전목>(堤堰  
 築目)의 제정으로 가뭄에 대한 대책수  
 립 등이 획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